

# 양돈 농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플랜



김 미 성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reddiver@mylp.com

지난 4월호에서는 단기 위주의 재테크와 긴 인생의 목표에 따른 재무설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무설계는 가족의 행복을 목표로 계획성 있는 장기투자를 말한다. 재무설계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건축되는 훌륭하고 튼튼한 건물에 비유될 수 있다. 높고 튼튼한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진행되는 작업이 바로 기초공사이다. 폭풍우나 지진과 같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기초공사가 필수다. 재무설계에서 기초공사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 ‘당신의 보장자산은 얼마입니까?’

모 생명보험회사의 TV광고에서 인기 개그맨이 등장해서 하는 대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자산이 위험관리 자산이다. 위험관리 자산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유고시를 대비해 반드시

시 준비되어야 할 자산이다. 위험관리 자산의 적정 규모는 다음과 같은 필요자금의 합계에서, 당장이라도 마련될 수 있는 준비자금의 차액을 말한다.

필요자금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자.

위험관리 자산의 적정규모 = 유사시 필요자금의 합계 - 준비자금의 합계

유사시 필요자금	준비자금
① 유가족의 생활자금	①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② 자녀의 교육자금	② 예·적금을 비롯한 금융자산
③ 자녀의 결혼자금	③ 현 주거용 외의 부동산
④ 주택대출 잔액	④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
⑤ 사후정리 자금-장례비와 병원비등	⑤ 사망 퇴직금
⑥ 부채상환 자금	
⑦ 긴급예비자금	

### 1) 유가족의 생활자금

유가족의 생활자금은 가장 생존시의 생활자금의 통상 70%수준이다. 생활자금은 자녀의 교육비를 별도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기본적인 생활비의 규모는 월 100만원 정도

가 필요하다.

2) 자녀의 교육자금

자녀의 교육자금은 자녀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데까지 필요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와 교재비 등을 말한다.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대학 졸업시까지 필요한 1인당 교육자금 총 필요액은 10,201만원이다.

3) 자녀의 결혼자금

가장의 유고시 각별히 준비가 되어야 할 자금이 자녀의 결혼자금이다.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남자의 경우 6,774만원, 여자의 경우는 3,870만원이 소요된다.

4) 주택대출 잔액

유가족, 특히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가장의 유고시에도 기존에 살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남겨진 주택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준비되어야 한다.

5) 사후정리 자금

질병으로 인한 가장이 사망한 경우, 수술과 입원 등의 장기간 치료를 동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유가족은 병원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통상 장례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부채상환 자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양돈의 경우, 대다수의 양돈농가가 정책자금 등의 대출이 있다. 가장의 유고시에는 곧바로 부채상환 요구가 있을 것이므

로, 이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7) 긴급예비자금

생활비의 통상 3배 정도의 긴급예비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각종의 경조사나 자녀의 질병 등에 대한 준비자금 등이 필요하다.

준비자금의 경우, 가장 이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소득과 미리 준비해둔 금융자산과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는 가장의 사망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녀가 돌인 30대의 양돈 농가의 예를 들어보자.

필요자금		준비자금		위험관리 자산
생활자금	4억	금융자산(예·적금)	5천	8억 2천
교육/결혼자금	3억	부동산(토지 등)	2억	-
사후정리자금	2천	유족연금(국민연금)	1억 5천	4억
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			
계	8억 2천	계	4억	4억 2천

위험관리 자산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가장의 유고시 남겨진 가족을 지켜주는 제2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된다.

위험관리 자산은 유사시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을 말한다.

그럼, 보장성 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사망의 이유나 원인을 묻지 않고 100% 보장되어야 한다.

과거 특정질병이나 교통재해와 같은 경우에만



지급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이럴 경우,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는 거의 보장이 안되거나 보험금이 아주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앞서 말한 위험관리 자산의 적정규모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사시 필요한 자금에서 당장 준비될 수 있는 자금의 차액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자산은 통상 자녀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되며, 이 후에는 사후정리자금과 배우자의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하다. 통상 합리적인 재무설계사의 경우 자녀의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는 많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특약 기능을 복합으로 설계를 권한다.

**셋째, 젊은 때 준비할수록 적은 비용이 들어 효율적이다.**

나이가 들면 비용도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진다.

**넷째,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의 10%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믿을 만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를 선택해야 한다.**

가입할 때는 까다롭지만 유사시 확실히 보장되는 보험회사를 선택해야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를 선택해야만 오래도록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장기적인 재무설계에 있어서, 위험관리 플랜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가정 경제의 주춧돌과 같다. 주춧돌이 튼튼해야만 그 위에 지어질 건축물이 높고 멋지게 완성될 수 있다. **양돈**